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통한 건설인력의 취업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ruitment Structure of Construction Workforce Through Surveying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원 경 연[○] 박 태 근[○]
Won, Kyung-yeon Park, Tae-keun

요 약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생산성과 공기 조절을 비롯한 건설 생산활동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각 연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건설인력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건설 수급 여건에 따른 건설 인력의 취업구조를 파악하여 취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키워드: 인력수급,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취업구조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문 또는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건설 인력 수급 전망과 중장기적인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임금 변화와 취업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 임금변화 추이에 따른 건설인력 취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직종, 종사자지위, 연령, 노동시간, 교육수준 측면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 기능 인력의 직종별 이급을 파악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와 통계청이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건설 인력의 직종, 종사자지위, 연령, 노동시간, 교육수준 측면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는 건설 인력의 직종별 임금실태를 비교 분석한 후 직종별 취업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건설 인력의 종사자지위, 연령, 노동시간, 교육수준측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취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2 건설기능인력 현황과 문제점

2.1 건설기능인력 현황

1999년에 저점을 지난 건설업취업자수는 2002년에는 178만여명을 기록했으며 2003년 4월에는 184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02년 4월에 비해 4.4%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약간의 인력 수요 증가에도 숙련공 쟁탈전과 임금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표1참조).

* 정회원,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목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표 1. 연도별 건설취업자수 및 건설수주액

연 도	'97	'98	'99	'00	'01	'02	'03.4
건설취업자 (천명)	2,004	1,578	1,476	1,581	1,575	1,786	1,844
건설수주액 (억원)	749,240	478,918	511,364	601,522	678,359	831,500	806,800 (연간추정액)

또한 청년층의 건설현장 종사 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상승을 야기, 최종적으로 건설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2.2 문제점

숙련공 부족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기지연과 무리한 공사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 산재빈발, 품질저하 등을 야기시키며,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은 상승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건설산업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사람의 숙련도에 대한 의존이 강하므로 자동화 및 기계화가 어려운 건설산업의 숙련공 고갈은 생산기반의 와해를 초래한다.

3. 건설인력의 취업 추이 분석

3.1 직종별 추이

직종으로는 기술직, 경영관리직, 기능직, 사무직으로 대별될 수 있으나 기술직과 경영관리직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기술 및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양분하여 분석하고 사무직은 제외한다.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는 1998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낸다.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가 건설업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크게 증대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큰 기능직 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상대적 효과인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수요의 절대적 증가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능직 취업자수는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기능 인력의 취업 비중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2001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시기에 기술직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의 상반된 현상에 기인한다. 즉, 기술직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규 진입 인력이 적체되어 공급 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기능인력의 경우 현장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비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건설업 기피현상으로 인력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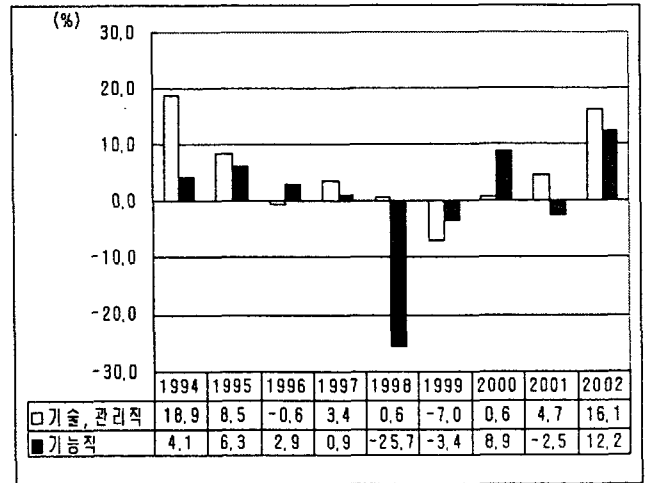


그림 1. 직종별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2 종사자 지위별 추이

종사자 지위는 임금 근로자에게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자영근로자에게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된다. 단,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건설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임시직과 일용직 지위는 동일한 고용 범주에 포함된다.

2002년 상용직 취업자수는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한 것에 비해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수는 14.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기능직 인력 가운데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수는 2002년 7월 평균 87만 6,000명 수준으로 기능직 전체 취업자수의 69~70%를 차지하면서 2000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1년 하반기부터 임시, 일용직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양상과 기술직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율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인력의 고용 지위가 상용직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던 기능인력이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대부분은 기능인력이나 기술인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 고용 형태가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직 및 일용직 취업자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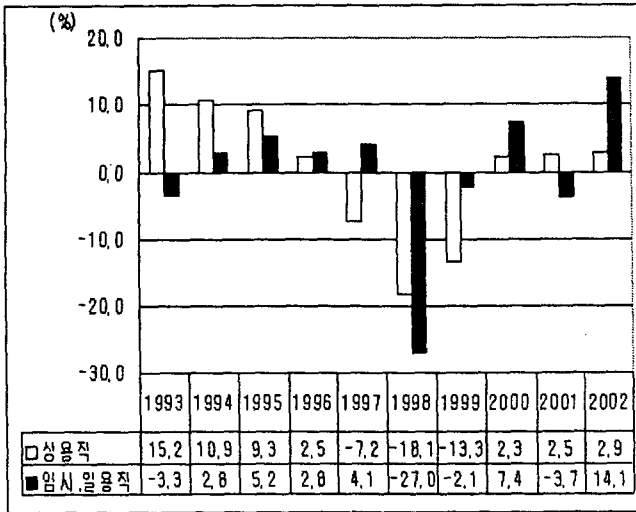


그림2.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3 주 50시간 이상 노동 추이

2001년 중 한 주에 5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81만 5,919명으로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5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부터 장시간 노동 취업자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후 제조업의 경우보다 낮은 양상이 지속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제조업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대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기능직 인력을 중심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크게 단축된 결과이다.

한편, 주당 60시간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노동한 취업자수를 비교해 보면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1년 중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는 평균 35만 7,000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21.0%에 해당되고 당 노동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1992년 11.7%에서 2001년 7.3%(평균 11만 4,000명)로 낮아졌으나 제조업의 경우(1992년 6.0%, 2001년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설업의 노동시간은 제조업에 비해 경기 변화에 보다 더 민감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7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 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¹⁾ 이는 건설활동이 공기(工期)의 제약을 많이 받고 공정이 연속성을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경우, 실제로 1992~2002년 사이 모두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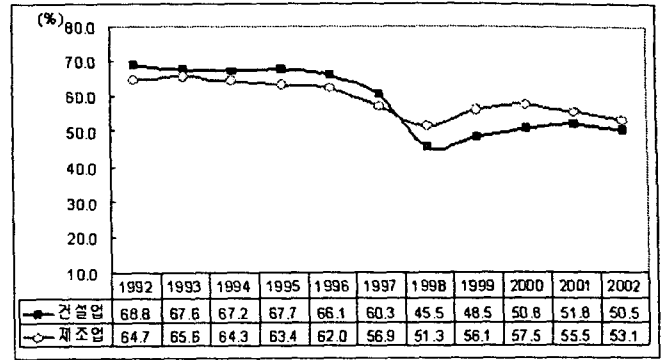


그림3.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한 취업자 비중 추이 비교

주 :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 취업자수가 전체 건설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4 연령별 추이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은 취업자의 연령 분포 추이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며,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취업자 분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령 분포 추이는 고령층 인력과 젊은층 인력의 비중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건설업 전체 인력의 약 74%를 차지하는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50세 이상 고령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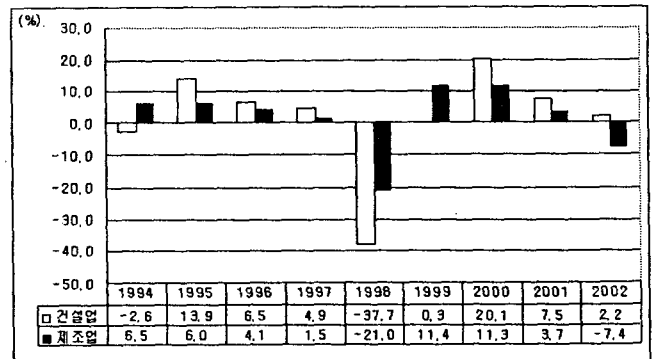


그림4. 고령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비교 (5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건설업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는 제조업에 비해 일등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대의 젊은층 취업자수는 1994~96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준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젊은층 건설업 취업자의 이러한 감소세는 제조업의 경우에 비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젊은층 기능직 실업자가 양산되었으나 건설업으로는 유입되지

못하고 제조업으로 일부 흡수된 양상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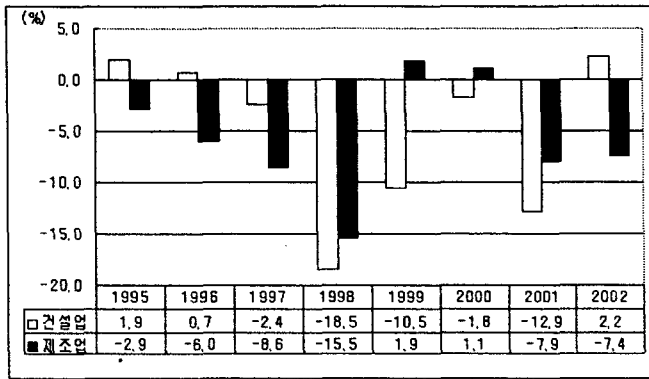


그림5. 젊은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비교(20~30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젊은층 유입 감소 현상은 건설업 전체 인력의 증감 추세보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서도 변화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3.5 저학력 취업자 추이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수는 1993년 78만 8,000명에서 2001년 46만 6,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46.6%에서 29.5%로 17.1%p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0.5%(189만 4,000명)에서 26.6%(111만 7,000명)로 감소한 것에 비해 소폭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제조업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1998년 이후 29%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수가 199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저학력 취업자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학력 취업구조로의 이동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건설업 저학력 취업자의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유입되고 있는

저학력 기능인력의 수는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저학력 건설인력의 이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신규 저학력 인력이 젊은층임을 감안해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간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4. 취업구조 변화 특성 및 대응책

직종별로는, 기술직 인력의 취업 증가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능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취업자수는 수요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증가율의 둔화와 젊은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인력 분포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정부와 건설 관련 단체들은 가용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수급 변화를 예측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5. 결론

건설산업의 취업구조 변화 추세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 틀이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를 지향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취업구조도 다른 산업과의 경쟁관계에서 산업 내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갈 것이다.

취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 인력 수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김문한 저 한국건설의 발전방향 기문당, 2000.6
2. 김태항 건설인력의 취업구조 추이 분석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bstract

While the recovery of local construction industry is picking up steam, and the number of the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on the increase, workforce supply is out of balance in its quality as well as quantity, and with economic crisis facing the country, construction and recruitment methods are in transition. In addition, rising demand in skilled workforce and a workforce in short supply have expedited wage rises and have brought broad effects on construction including productivity and construction time. Such imbalance in construction workforce supply also causes various structural changes by category.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data on annual wages of construction workforce, analyzes the state of construction workforce supply, understands recruitmen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workforce supply conditions, and looks over characteristic changes in recruitment structure. With reflections drawn from these, this paper suggests responsive measures to future construction circumstances - changes to wages of construction workforce - as well as prospects of future construction workforce supply and measures designed for stable medium and long-term workforce supply.